

1

광고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치과 장비 및 기구 광고에 관한 연구

前 신재의 치과의원
박사 신 재 의

ABSTRACT

The study on advertisement of dental devices & instrument during Japanese colonized period

Shin Jai-eui's Dental Clinic (Retired)
Shin Jai-eui, D.D.S., M.S.D.,Ph.D.

This article is purposed of reviewing the development history of Japanese dental devices and instrument, and their related advertisement activi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zed period in Korea in early 20th century.

Japanese dental devices and instrument were redesigned to accommodate their ergonomic shape above the simple imitation, and it implies the excessive desires brought them frustrations.

The tragic earthquake on Sep.1, 1923, medical insurance law enforcement on Jan.1, 1927, celebration of "Cavity prevention Day" started on Jun. 4, 1928, and the attack of Manchuria and China by Japan after 1931, all of these historical incidents become the preliminary requirement for the development of dental devices.

On Nov. 1, 1937,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control dental materials, driving the campaigns for excluding foreign products and encouraging the use of local products.

In 1939, Nakajima dental manufacturers used this political and social atmosphere on their advertisement as saying "Our Nakajima's products have no compromise with the short raw materials, but only commitment to our quality".

Since after 1940, the price and supply have been strongly under control, and the control group was appeared to manage all of supply and distribution of raw materials, regular price system, and specifications.

At last, the Japanese national power were devastated in it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apacities, and get to the frustrated period.

The main advertised dental devices and instruments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zed period were 1) dental chair, unit and cabinet, 2) dental x-ray, 3) compressors, 4) dental needles, 5) small instrument and carry on medical(emergency) kit, 6) oral hygiene and pyorrhea alveolaris, infrared rays, sunlight lamp, ultrashort wave treatment devices, 7)crown former, electric furnace, casting machine, articulator, electric lathe, and laboratory equipments, etc.

Key words : dental devices and instrument, advertisement, Japanese colonized period,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control dental materials,

ORIGINAL ARTICLE

1. 머리말

삶과 죽음은 언제나 인간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치과질환도 피하지 못할 것이었다. 이러한 치과질환을 보다 좋은 위치와 조건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장치 및 기구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그 문명과 함께 도구를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치과 장비 및 기구 중에 중요한 하나가 치료의자이다. 18세기 이전에는 치과 치료를 하기 위하여 바닥에 앉히든가, 눕히든지, 필요한 경우 생활 의자에 앉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치료의자에 대해서 관심을 처음 가진 치과 의사는 뻬에르 포사르(Pierre Fauchard)였다. 그는 목제 손잡이가 달린 의자, 안락의자나 침대를 사용했다¹⁾.

1790년경 미국 보스톤에 거주하는 치과 의사 프래그(Josiah Flagg)는 머리받침과 팔걸이식 기구대를 갖춘 치료의자를 만들었다²⁾. 1848년 미국인 한젯(H. M. Hanchett)이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춘 치료의자를 만들게 되었다. 머리를 고정시키고, 발을 올려놓은 곳, 등을 대는 판과 승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이었다. 1848년 씨엘(F. Searle), 1849년 에이제(A. Meritt Asay)와 1855년 볼(T. C. Ball)에 의하여 개량되었다. 1870년 스노우덴과 카우만(Snowden and Cowman)은 타구를 부착시켰다. 1876년 화이트(S. S. White) 치료의자가 나왔고, 윌커슨(B. M. Wilkerson) 치료의자가 시판되었다³⁾.

1885년 선교사 알렌(H. N. Allen)이 제중원을 운영하면서 발치(拔齒)를 시술한 것이 한국근대치의학의 효시였다. 그러나 그가 환자를 어떤 자세로 발치를 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고, 다만 사용된 발치 감자는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남아 있다⁴⁾.

1893년 한국에서 치과 의사로 처음 개업한 치과 의사는 노다(野田應治)였다⁵⁾. 그가 어떤 의자를 사용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목제 의자를 사용했고, 후트 엔진(foot engine)을 사용했으리라 추정할 뿐이다. 그의 진료소 입구에 진열장을 마련하여 치과에 취급되는 각종 그림이나 보철물을 전시하였고, 간판에는 총의치 등의 그림을 그려 넣었던 것으로 보아 격식을 갖춘 진료실을 갖추었으리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1902년 9월 치과 장비 및 기구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일본인 입치사가 코모리(小森)는 치과치료소를 진고개(泥岬)의 육여관에서 개설했다⁶⁾. 이 병원에 후트 엔진(Foot engine)과 배타기가 부착된 간단한 목재 의자를 가지고 있었다. 2~3개의 발치 겸자와 엘리베이터(elevator), 간단한 몇 개의 기공 기구 등과 약품으로는 페놀카파와 옥도정기, 붕산 등을 가지고 개업하였다⁷⁾.

1914년 6월 19일경 한국인 최초의 치과 의사 함석태는 서울 남부 삼각정 1번지에서 '수술무료'라는 안내를 하며 개업하였다⁸⁾. 이와 같이 함석태는 보철 등 치과일반을 치료하면서 구강외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아 구강

1) 李漢水, 『東西齒學見聞記』, 석암사, 1977. 196-197쪽.

2) 이병태, 『치의학사전』, 출간 예정 사진

3) 李漢水, 『東西齒學見聞記』, 석암사, 1977. 196-197쪽.

4) H. N. Allen and J. W. Heron,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Seoul, For the Ending April 10th, 1886, Printed by MEIKLEJOHN and Co., No.26 Water Street, Yokohama, Japan, 1886. ; 박형우 · 여인석,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 『연세의사학』, 3권 1호, 1999. 3-81쪽.

5) 大澤義誠, 「조선치과변천 이야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76-91쪽.

6) 《皇城新聞》, 1902년 9월 9일자.

7) 은중기, 「한말의 치과업계에 대하여」,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70쪽.

8) 《매일신보》, 〈광고〉 1914. 6. 19.

9) 《동아일보》, 〈광고〉 1924. 원단.

ORIGINAL ARTICLE

외과 치료에 충분한 진료 시설을 갖추었으리라 추정된다⁹⁾.

1914년 3월 나기라(柳樂達見)가 총독부위원에 왔을 때 치과 진료 시설은 치과치료용 의자는 목제로 4대, 치과용 엔진은 후트 엔진(foot engine)뿐으로 빈약하였다¹⁰⁾. 전기 엔진은 일본에서도 극소수만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기라 다쓰미는 전기용 엔진의 필요성을 총독부위원장에게 역설했고, 또 전신마취용 소기(笑氣)도 구입했다¹¹⁾.

1924년 4월 경성치과의학교 부속의원 장비는 3학년생의 임상실습을 위하여 총독부의원 안에 치료의자 5대를 갖춘 10평정도의 진료실을 만들었다. 1924년 10월 황금정(을지로)의 일본생명 빌딩에 경성치과의학교 부속의원 시설과 장비는 치료의자 27대였고, 특별히 예진 및 특진실은 승강의자 1대가 준비되었다. 독일 지멘스의 엔진과 렌트겐, 독일 하노버 자외선 장치, 태양등을 갖춘 설비였다¹²⁾.

1931년 10월 28일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 센터가 준공되어 독일 릿터사 제품의 치과 치료대 10대와 미국 화이트(S. S. White)사의 각종 기구가 들어오기도 했다³⁾.

1925년 6월 15일 발간된 조선치과의학회에서 발간한『조선치과의학회잡지(朝鮮齒科醫學會雜誌)』1호에는 한국 서울에 반센(滿鮮)치과상회와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치과기계부에서 치과 장비 및 기구를 취급하였던 것을 알려주고 있다¹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치과 장비 및 기구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가 패망 후 나라는 독립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소비시장이었던 치과 기

재의 산업은 아무 것도 없던 상태이었다. 현재는 치과 기자재의 산업도 치과계와 마찬가지로 세계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전단계인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광고 되어진 치과 장비 및 기구를 돌아보는 일은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일본치과기업협회 업계 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과 유통편)』와 조선치과의학회에서 발간한『조선치과의학회잡지(朝鮮齒科醫學會雜誌)』, 경성치과의학회의『경성치과의학회잡지(京城齒科醫學會雜誌)』, 경성제국대학의학부 치과학교실에서 발간한 월간지『조선지치계(朝鮮之齒界)』와 『만선지치계(滿鮮之齒界)』에서 발췌하였다¹⁵⁾. 이들 자료에는 치과 장비 및 기구 광고가 들어 있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치과의사들이 사용한 치과기자재 변천 연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2. 일본에서의 치과 장비 및 기구 : 모방과 도전 그리고 좌절

일본의 치과 장비 및 기구는 모방과 도전 그리고 좌절의 3단계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도입기이다. 일본의 치과 장비 및 기구는 기술자의 모방과 도전의 소산이었다. 기술, 기술자를 존중하는 기풍과 “기술”에 대한 자신이 있었다. “외국제 품에 지지 않는 것을 만든다.”라는 신념은 수입기계의 연구, 기술의 흡수에 몰두하게 하였다⁶⁾.

10) 은중기, 「한말의 치과업계에 대하여」,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70쪽.

11)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 참운, 2004. 128쪽.

12)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 참운, 2004. 93쪽.

13) Boots, J. L. The New Dental Clinic at Seoul,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vol. 28 no. 1, 1932. 7-9쪽.

14)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호 : 1925. 6. 15.

15) 『滿鮮之齒界』는 1934년과 1939년 광고를 주로 인용 하였다.

16)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53쪽.

ORIGINAL ARTICLE

일본의 치과재료상 미스호야(瑞穂屋) 시미스(清水卯三郎)가 치과기계의 제조를 시작한 정확한 연도와 공장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불명하다⁷⁾. 타카야마(高山紀齊)가 때때로 이 미스호야(瑞穂屋) 공장에 나타나 “치과의자는 이렇게 쓰고 싶은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기술자가 개발하곤 하였다. 이것은 치과기계의 일본 상품화를 성공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1895년에 열린 제4회 내국권업박람회가 이것을 뒷받침하였다. 당시의 제품은 단지 구미치과기계의 모방만으로 그치지 않고, “오하다(小幡)식 치료대” 등 일본인의 체형에 맞게 연구되었다¹⁸⁾.

이후 미스호야(瑞穂屋) 공장의 기술자와 창업자, 상점의 설립자 등은 계보를 이루어 일본치과업계를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다음과 같다¹⁹⁾.

1916년 야마구치(山中卯八)는 증화관을 개량하였다²⁰⁾. 1917년 아오키(青木謙治)가 설립한 아오키(青木)형제제작소는 유니트를 수도 스피톤, 증화관과 함께 제조하였다²¹⁾.

1919년 시미다(島田辰次郎)가 수공으로 리더형의 전기엔진을 만들었고, 전기기계의 제조, 수리를 하던

콘도(近藤寛)도 전기엔진을 만들었다²²⁾. 1919년 마에다(前田嘉三次)는 펌프식의 승강의자를 제작하여 호평을 얻었다. 승강의자는 이 시대에 진보한 제품이였다. 당시, 의자를 제조하고 있었던 것은 도쿄(東京)에서 마에다(前田), 하라(原), 오사카(大阪)에서 나카이(中井) 등이 있었다²³⁾.

1917년~1935년경에 치과에서 인기 있었던 수입처와 치과 장비 및 기구는 다음과 같았다.

미국 S.S 화이트사 : 치료의자, 발 밝기와 전기엔진, 증화관

리더사 : 드라이덴트 유니트, 전기엔진, 배전반, 콘프레서

란손사 : 바

웨스팅하우스사 : 선풍기

독일 아놀드사, 비바사 : 전기엔진, 치료의자, 발 밝기 엔진, 수도 스피톤

스위스 메르파사 : 크렌저, 바, 리마

일본에 수입한 기계는 무엇이든 재고될 틈이 없을 정도로 잘 팔렸다. 뭔가 신기한 기계가 들어오지 않았

17)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22쪽.

1869년 淺草森田町에서 橋本町으로 점포를 옮겨서 가업으로 하고 있는 양서판매를 하다가 1876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치과재료를 미국 S. S. 화이트사에서 수입한 상점. 후에 치과기계의 제조도 하였다. 1895년부터 약 10년간, 瑞穂屋에서 일하던 山中卯八 (吉田제작소 창업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에는 꽤 관찰은 장이었다. 실력 있는 기술자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공장이 훌륭하다 해도 당시의 것이었다. 기술자는 수동, 또는 발로 밝는 선반에서 절삭 등으로 매일 많은 땀을 흘렸다. 현재 공장에서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규모였다.”고 했다.

18)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22-24쪽.

19)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32, 38, 39쪽.

中沢상점 瑞穂玉 공장의 하청업체로 中沢寅吉의 공적은 제조 면보다도 많은 인재를 길러낸 것에 있다.

中井치과상점은 中井安之助가 1900년에 大阪에서 치과상점으로 설립되었다.

일본치과상사는 1902년 설립하였다. 현재의 일본치과상사는 동사의 사원이었던 竹下彦次가 명칭만을 이어받은 것으로 전혀 다른 회사이다.

森田는 1916년 무역상 大沢상회에 근무하던 森田純一이 외래의 카탈로그, 팸플릿 등에 의해 치과 용품의 특수성을 인식하였다.

大沢상회의 승인을 얻어 京都 麩屋町の 집의 일부를 개축해서 森田치과상점을 설립하였다.

20)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56쪽.

21)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67쪽.

22)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54쪽.

23)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56쪽.

ORIGINAL ARTICLE

관공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치과 장비 및 기구 광고에 관한 연구

나 하고, 가게 쪽으로 일부러 방문해 오는 치과의사들도 드물지 않았다.

이 시기에 S.S 화이트사의 사장을 비롯하여 외국메이커의 관계자가 빈번히 왔다. 이것은 일본의 시장이 얼마나 유망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었다²⁴⁾.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은 치과 장비의 발전에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이 재난을 계기로 단체결성의 기운이 높아지고, 일본 상품을 장려하는 소리가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이었다²⁵⁾.

1925년 하시모토(橋本幹太郎)는 전기엔진을 수리하였고, 1929년 제국(帝國)전기제작소를 설립해 전기엔진의 제조를 하였다²⁶⁾.

처음 몇 차례 일본은 유니트와 의자를 외국제품을 모방하였으나, 일본인의 체격에 맞춘 것도 생겨났다. 1926년경부터 의자에 수도 스피톤, 브라켓을 갖춘 테이블, 전기엔진, 스포트라이트를 갖춘 유니트가 사용되었다. 또 치과의사의 가운데 자기가 고안한 유니트를 의료기계실에 부탁해서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위적인 것이었고, 전문 제조자가 아니었으므로 고장도 많아 보급은 되지 않았다²⁷⁾.

이 시기 공황과 테러와 군부 대두로 불안하였으나, 일본 치과업계는 결실이 적지 않은 시기였다. 유니트, 전기엔진의 본격적인 생산, 보급으로 종래의 치료실은 새로워졌다. 상품은 충실하여, 외국제품을 밀어내게 되었다. 국내수요 뿐만 아니라, 수출도 왕성하여 업계는 활황을 보였다²⁸⁾.

1927년 1월 1일 건강보험법 시행과 1928 6월 4일 제1회「충치예방데이」로 국민의 치과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치과치료의 질적 향상을 향한 소리가 높아졌다. 수요는 증가 되었다. 가내공업은 공장으로서의 체제에 도달하게 되었다. 수급 균형이 유지되어 가격도 안정되었다²⁹⁾.

1927년 유니트는 모리타(森田)³⁰⁾는 아메리카의 리더사의 트라이덴트 유니트를 모델로 일본산 유니트를 제작하여, 그 효시가 되었다. 성능은 외국제품에 견줄 만한 것이었다³¹⁾.

- 24)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52-53쪽.
- 25)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59-66쪽.
- 26)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95쪽.
- 27)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77쪽.
- 28)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70쪽.
- 29)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71쪽.
- 30)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유통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55쪽.

주식회사 모리타(森田) (大阪) (吹田市 垂水町 3丁目 33-18, 森田福男)

- ① 森田純一. 滋賀縣草津 출신, 慶應義塾에서 배움, 무역상大沢상회 (京都)에 입사, 창업 시에는 상무취체역이었다.
- ② 사사병, 외국 치과용품에 접하는 것도 많았으므로 1916년 10월 수입치과기재의 판매를 목적으로 京都屋町二条下の 거택의 일부를 개축해서 森田치과상점을 창업했다. 더욱이 당사자는 그대로 1929년까지 大沢상회에 재사해서 직접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지배인 大塚精一이 일의 일질을 꾸러갔으나 두뇌 명석한 즉 "민완가"로 수년 안에 東京 (1918년), 大阪 (1921년), 小倉 (1922년)에 지점을 개설해서 판매망을 전국에 퍼뜨려 대정 말에는 대수도매상으로서의 지위를 반석 한 것이었다.
- ③ 당시의 森田이 주로 취급한 제품은 수입품이었으나 한편 유리한 취인조항 아래에서 요청한 공장을 독려하고, 우수한 치과기계를 제작하여, 전국에 판매했다. 외국제품을 일본산품부품 (양)과 조합한 전기엔진을 제작하는 등, 일본산품제품의 품질향상에 공헌하고 있으나 1927년에는 전속공장을 설치해 치료대, 유니트 등의 제조에 전념해 1933년에는 京都西院에 신 공장을 건설해 도매상으로서의 최초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1916년 森田치과상점이 가입해서 일곱 상점이 되어「칠사회」라 불린다. 中井치과상점, 일본치과상사, 小川상점, 山田상점, 中沢상점, 杉山상점, 森田치과상점

- 31)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78쪽.

ORIGINAL ARTICLE

1928년 1월 20일, 도쿄(東京)에 거주하는 제조가 33명이 도쿄(東京)의 연낙현에 모여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일본치과기계공업회」를 출발시켰다³²⁾.

둘째는 소비시장기 확대기이다. 1931년 중국대륙 침략은 일본의 국책이며 또 일본인의 꿈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만주, 중국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의 확대로 수출이 늘고, 군납도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의 생산고는 눈에 띄게 신장됐다³³⁾.

1933년 모리타(森田)상점은 대련의 만주박람회 B형 유니트 전시, 1934년 만주국대리점으로서 태평양행(대련, 봉천)과 계약하고, 1938년 중지대리점에 상해신흥아과공사와 계약, 북지대리점으로서 삼화양행과 계약하고, 1939년 만주국 신경특별시(장춘)에 신경점을 개설하는 등 호황이었다³⁴⁾.

1931년경 요시다(吉田)제작소³⁵⁾는 새로운 로타리 컴프레샤와 전기엔진이 달린 유니트가 개발되었다. 이 제품은 일본인의 인체공학에 맞춘 독자적인 타입이

었다. 게다가 가격은 싸고 서비스도 좋아 널리 보급되었다³⁶⁾.

1935년 이후 유니트는 호화로워져 4개의 상들이리가 조명등으로 장치되고, 색조도 여러 가지의 밝은 색조로 바뀌어있다. 유니트의 전기엔진은 수입품을 몰아내게 되었다³⁷⁾.

판매도 제조사가 치과의원과 소매점에 직접 판매하는 것이 늘어났고, 제품의 카탈로그를 발행하거나 업계 신문과 잡지에 광고도 나타났다³⁸⁾.

셋째는 통제기이다. 1937년 11월 1일 중일전쟁의 발발로 일제는 수입품을 막아내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에 나서자고 하며 치과재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³⁹⁾.

1937년 11월 01일
수신 : 각 도지사

경무국장

국산 의약품 및 약료재료(치과재료를 포함)의 사용
장려에 관한 건

이번 제목의 건에 관해 내무성에서 각 지방장관은

32)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84-85쪽.
33)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74쪽.
34)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73-74쪽.
35)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유통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143쪽.

주식회사 요시다 (東京都 台東區 上野 7丁目 6-0, 山中五郎)

① 山中一, (주)吉田제작소 회장.

② 1951년 5월, 台東區 小島町에 吉田판매(주)를 설립, 초대사장에 山中一이 취임했다.

③ 1906년에 山中卯八이 창업한 (주)吉田제작소의 경영부문을 분리, 자본금 2천만 엔으로 독립한 회사이다. 이후, 이 본사를 거점으로 전국에 영업을 개설함과 동시에 치과업계 최초의 특약점 제도로서 1958년에 결성했던 吉田친진회를 중심으로 판매망을 펼치는 한편, 상품, 정보서비스의 확충을 더해서 1970년부터 東京, 大阪 등 6개소에 소품, 강연회장 등을 준비한 덴탈 커뮤니티센터의 개설을 진행했다. 1968년에 치과업계 최초의 덴탈·론 제도를 계속해서 익년, 리스제도를 도입했다. 이보다 앞서 1967년에는 프랑스의 마이크로·메 가사와의 기술, 판매제휴가 성립, 수출입업무도 시작했다. 1973년, 山中一이 회장이 되어 대신해 山中五郎이 사장으로 취임했다. 1975년에는 사명을 주식회사 요시다로 변경, 동년, 山中一이 감원보장을 주장했다. 더욱이 1984년에는 훈사등서옥장의 영예를 입고 있다. 1977년에 上野역전에 9개 건물, 연 1300명의 본사 빌딩 (현 사옥)을 신축, 이전했다. 이 사이 수차의 증자를 더해 자본금은 3억2천만 엔이 되어 총매상은 200억엔을 돌파했다. 1984년 현재, 전국 47도 도부현에 47개소의 본·지점·영업소를 배치해, 상품유통, 정보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종업원 수 450명.

36)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78쪽.

37)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78-79쪽.

38)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74쪽.

39) 『滿鮮之齒界』, 6권 12호: 1937. 12.1 15쪽.

국산 의약품 및 의료재료(치과재료를 포함)의 사용권장에 대해

ORIGINAL ARTICLE

연구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치과 장비 및 기구 광고에 관한 연구

수신의 취지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이것에 관한 통첩하는 뜻 상공성에서 통보가 있었다. 조선에서 사용하는 외제 약품 및 의료 재료 중에는 일본산 상품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의 적지 않다. 이것을 사용 장려하는 것은 현재 시국에 비추어 긴요한 조치라고 인식된다. 이에 대해서 귀관은 아래의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제사회, 약업자 기타 관계 각 방면과 연락을 취하여 철저히 배려되도록 통첩한다.

첨부, 일본산품으로 수입품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중 조사 완료된 것은 별표와 같이 첨부한다.

1938년 1월 후생성이 설치되어 모든 의료행정을 관장하게 됨에 따라 치과기계도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측면에서 후생성의 감독지도를 받게 되었다. 생산은 상공성의 소관으로 필요자재는 모두 상공성이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원행정 때문에 원활한 생산이 저해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⁴⁰⁾.

1938년 4월 10일 「동경치과기계공업조합」의 설립인가서가 교부되었고, 무엇을 해도 모두 이 단체를 창구로 행해졌다⁴¹⁾. 1939년 「일본의료기계공업조합」으로 합병되었다⁴²⁾.

1939년 나카지마(中島)치과기계제작소⁴³⁾는 “시국이 자재가 적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더 한층 치과보국을 위해 제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나카지마의 제품”이라고 시국을 유니트 판매 상술로 등장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카지마(中島) 치과기계제작소는 고급형 치료 장비를 공급하기도 했다.

1939년 말, 1940년 1월경 치과재료 부족상태는 중일전쟁 3년을 하고 있어 심각하였다. 금속류는 물론 부족하였고, 상품으로서의 기계류는 재고가 거의 없었다⁴⁴⁾.

1940~1941년 통제가 급격히 진행, 가격, 판매 면까지 미쳤기 때문에 규격통일에 따라 기종이 감소되었다. 자재의 할당, 배급이 혼란 하는 등은 일원통제에 의한 생산력 향상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나름의 생산에 지장을 주게 되어 버렸다⁴⁵⁾.

1941년 5월 30일 일제는 “조선의 치과 의료기계 12종목 공정가격고시”를 하고 판매되고 있는 치과 의료기계 12종목의 공정가격이 지난 5월 13일부로 조선 총독부 제688호로 고시되었다. 이 후 계속적인 가격

1937년 11월 19일 경무국 니시카메 위생과장

중일사변의 촉발은 지금까지 호소해왔던 일본산 상품 애용의 목소리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게 하고 있다. 지금 각 방면 모두 열심히 수입품을 막아내고 일본산품을 애용하는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더 할 나위 없는 일이다. 의약품 의료재료 중에 수입품에 비해 품질우량 가격 저렴한 것도 있다.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수입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습관 또는 인식의 부족으로 만연 외국품의 수입 또는 사용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 때문에 수입액은 2천 수백만 엔을 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총독부에서는 내무성과 협력하여 일본산 상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11월 1일부로 경무국장이 각 도시사 앞으로 다음과 같은 통첩을 내었다. 이 문제는 제조업자 수입업자를 비롯하여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제사회, 약업조합 등의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당국자의 힘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 또 수입품을 막아내고 일본산 상품 사용 장려에 개개업자의 거래상 상당한 이해득실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개개의 이해를 떠나 각 관계자 일치단결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원조를 부탁한다.

- 40)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104쪽.
- 41)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103쪽.
- 42)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105쪽.
- 43)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67쪽.
 中島제작소 1923년 中島제작소는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치과용 소기계 제작하고 있었으나 1931년 전후에 로타리 컴프레샤를 제작, 적극적인 판매법으로 치과의의 설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후술한 대로이다. 1973년에 다카라 中島로 사명을 변경, 회장이 되었다. 현재의 대표자는 2대 忠夫로 치과용 유니트 등을 제조하고 있다.
- 44) 『滿鮮之齒界』, 8권 12호, 1939. 30쪽. ; 9권 2호, 1940. 33쪽.
- 45)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105쪽.

ORIGINAL ARTICLE

의 통제가 이루어졌다⁴⁶⁾.

1941년 7월 7일 「일본치과기계공업조합」이 상공성의 인가를 받아서 전국통합의 품종별 공업조합으로서 발족하였다. 자재통제와 공정가격제도와 규격통일문제가 나타났고,⁴⁷⁾ 그 결과로 치과기계의 생산은 급격히 떨어졌고, 치과기계의 할당제가 되었다⁴⁸⁾.

1943년 태평양전쟁이 격렬하게 되자 설비가 있는 공장 요시다(吉田), 모리다(森田), 마에다(前田), 나가다(長田) 등은 군 지정공장으로서 군수품을 생산하게 되었다⁴⁹⁾.

1944년 3월 「일본치과기계통제조합」이 설립되었고,⁵⁰⁾ 1944년 11월 12일 「일본치과기계공업통제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일본의 국력은 생산도 배급도 한계에 다다르고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⁵¹⁾.

1944년 말 적기의 내습을 예상한 정부는 주요산업의 지방소개를 장려하게 되었다⁵²⁾.

3. 조선에서의 치과장비 및 기구 광고

1) 치료의자, 유니트와 캐비닛

1925년은 경성치과의학과의 졸업생이 나오며 조선에서 치과의사의 수가 증가하는 시기였다.

1925년 서울의 반센(滿鮮)치과상회는 서울 메이지초(明治町)에 본점을 두고 만주 대련(大連)에 지점을 두고 치과 장비를 취급하고 있었다.

1925년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는 남대문 삼정목(三丁目)에 건물을 신축하고 사카이(酒井好一)를 영입하여 일반의료를 취급하던 곳에서 치과기계부를 확장하게 되었다⁵³⁾. 사카이(酒井好一)는 경성치과의학과의가 만들어진 후부터 학교의 지정 상인으로 학생실습용의 기계재료를 공급해 오고 있었다⁵⁴⁾.

1926년 조선에서의 치과 장비는 구미 각국의 제품이 수입되고, 일부 일본 회사제품도 있었다.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기계부는 새로운 3층 건물과 함께 구미 각국 유명 의료기계회사 특약 대리

46) 『滿鮮之齒界』, 10권 5호, 1941. 17쪽. 조선치과용품상조합에서 신청한 석고의 공정 판매가격(조선총독부 고시 제543호)이 결정되었다.
 『滿鮮之齒界』, 10권 6호, 1941. 31쪽. 1941년 5월 13일 조선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과 의료용 기계 12종목에 대해 공정가격(조선총독부 제688호)이 고시되었다.
 『滿鮮之齒界』, 10권 9호, 1941. 22쪽. ; 11권 1호, 1942. 24쪽. 1941년 8월 18일과 1941년 12월 4일에 改正(조선총독부 고시 제1283호와 제1956호)하였다.
 『滿鮮之齒界』, 11권 7호, 1942. 17쪽. 1942년 5월 29일에는 치과기계 공정가를 추가 고시하였다.
 『滿鮮之齒界』, 12권 5호, 1943. ; 『齒科研究』, 22권 6호, 1987. 48쪽. 1943년 3월 9일에 왁스, 3월13일에 수은, 3월 19일에 은아말감 합금 등의 공정가격을 공시하였다.
 『滿鮮之齒界』, 12권 5호, 1943. ; 『齒科研究』, 22권 6호, 1987. 51쪽. 1943년 7월에는 도치 가격을 고시하였다.
 47)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106쪽.
 48)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108쪽.
 49)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116쪽.
 50)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109쪽.
 51)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110쪽.
 52)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116쪽.
 53)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호 ; 1925. 6. 15.
 54)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 참윤, 2004. 141-142쪽.

ORIGINAL ARTICLE

관공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치과 장비 및 기구 광고에 관한 연구

점으로 독일 지멘스 라인겔 바이파(Siemens-Reinger-Veifa)회사 동양총대리점이며 경성치과의 학교의 지정된 기재상으로 광고하였다⁵⁵⁾.

1926년 반센(滿鮮)치과상회는 직수출입 합명회사로 치과기계와 수리일체 그리고 치과재료를 취급하였다⁵⁶⁾.

1926년 테라다(寺田)상회 치과부는 모리타(森田)치과상점 조선만주 총대리점으로 서울에서 치과 기재상으로 등재하였다⁵⁷⁾.

1926년 나카자와(中澤)치과기계제조사는 유명 구미제품 재고 풍부하며, 우량 자가제품 유택하고, 정비를 한다고 하였다⁵⁸⁾.

1927년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기계부는 독일 베르린(Berlin)에서 생산된 지멘스 라인겔 바이파(Siemens-Reinger-Veifa) 벽걸이형 실버 전기엔진을 수입판매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

육군 위생재료창 지정품이기도 했다⁵⁹⁾.

1927년 일본은 유니트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27년 모리타(森田)가 미국 리더사의 트라이엔트 유니트를 모델로 제작한 것이 본격적인 일본산 유니트의 효시가 되었다. 이 유니트는 모리타(森田)의 전속공장 이시바시(石橋)제작소(京都)에서 제작했는데 엔진은 리더사제, 선풍기는 웨스팅하우스사제를 사용해서 본체 그 외에는 모리타 제품이라는 일본과 미국의 절충형이었다. 성능은 외국제품에 견줄만한 것이었다. 판매가격은 980엔이었다.

1927년 모리타(森田)는 이 유니트 외에 철골의자와 리더 형 엑스레이, 전기엔진, 콘 프레스 등을 제조하였다⁶⁰⁾.

1927년 미야시타(宮下)캐비닛은 유니트 목제테이블과 캐비닛을 제작하였다⁶¹⁾.

1927년 요시노(吉野)제작소는 일본치과상사⁶²⁾의 하청공장, 미야우치(宮内)제작소는 삼영(三營)상회의 하청공장으로서 유니트 제작에 참여하였다⁶³⁾.

1923년 경성치과의학교는 사카이 코오이찌(酒井好一)를 학교의 지정상인으로 정하고 학생실습용 기계재료를 공급하게 하였다.

55) 『朝鮮齒科醫學會雜誌』, 2호: 1926. 9. 15.

56) 『朝鮮齒科醫學會雜誌』, 2호: 1926. 9. 15.

57) 『朝鮮齒科醫學會雜誌』, 2호: 1926. 9. 15.

58) 『朝鮮齒科醫學會雜誌』, 2호: 1926. 9. 15.

59) 『朝鮮齒科醫學會雜誌』, 6호: 1927. 11. 20.

60)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78쪽.

61)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66쪽.

62)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유통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27쪽.

일본치과상사

1896년 창업. 창업자 高橋金十郎은 동인회(현재 동지사)에서 영어 교편을 잡은 적도 있는 지식인이었다. 친형이 서양에서 치과의학을 배우는 닥터로 귀국해서 개업한 한편, 도치의 연구를 하고 있던 관계로 치과재료에 흥미를 가진 것이 되었다. 이윽고 高橋金十郎은 면학을 위해 도미하여 치과의 연구에 전향해 S. S. 화이트사 등을 견학하고 귀국, 神田淡路町에서 양서와 치과용품의 판매하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1868-1911년의 선각자다운 「사혼을 가지고 일관한다」의 기개를 가진 이상주의자였다. 1903년 問屋仲間五店과 합동하여 합자회사 일본치과상사를 만들고 점포를 東京八重洲로 옮겼다. 이것이 업계 최초의 법인조직이었다. 이때 각 상점의 수종의 상품, 집기는 물론 점원까지 추렴하는 철저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목적은 너무도 이상적이어서 한 명 건너 두 명 건너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 때문에 상사는 高橋 한명이 경영하는 곳이 되었다. 1911년에는 「대사라 하면 弘法대사, 상사라 하면 일본치과상사다」라는 호언장담하며 자타가 인정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하나의 치과 기재점에서 길러내었다. 한편 1912년 업계최초의 주식회사를 조직 개편되었다.

63)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96쪽.

ORIGINAL ARTICLE

1928년 나카자와(中澤)치과기계제조사⁶⁴⁾는 점포를 새로 짓고 업무확장을 하였다. 개업 설비 및 증설에 필요한 것을 진열하고 염가로 드리며, 통신판매도 한다고 하였다⁶⁵⁾.

1929년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기계부는 타구와 흡입기가 부착된 치료의자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이러한 치료의자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는 별도로 제작된 개량형을 공급하기도 했다⁶⁶⁾.

1930년대 토요(東洋)치과상회는 국내외 치과재료와 기계를 제조원에서 직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⁶⁷⁾.

품명		정가
유니트(전기엔진 및 선풍기 그 외)	1set	300
트라이덴트 유니트	1set	280
전기엔진	1set	150
케이블엔진 중차	1벌	17
여행용 페달엔진	1벌	16
철골 콜롬비아 체어	1대	160
철골 스페셜 체어	1대	145
목제 혼성 치료용 의자	1대	35

벽 부착 탁자 지지기	1벌	16.5
소기계 소독기(자불 2단)	1벌	12

1930년 나카이(中井) 유니트가 발매되었다⁶⁸⁾. 이 유니트에는 전기엔진, 배전판, 수도 스피톤, 라이트, 브라켓 테이블이 장착되어 있었다⁶⁹⁾.

1931년 요시다(吉田)제작소는 새로운 로타리 컴프레셔와 전기엔진이 달린 유니트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유니트는 일본인의 신장(당시의 평균은 5척 2촌), 습관 등 인체공학에 맞춘 독자적인 타입으로 외국제품의 모방에서 벗어난 제품이었다. 게다가 가격은 싸고 서비스도 좋아 널리 보급되었다. 1935년 발행의 요시다(吉田)제작소의 종합카탈로그가 남아 있다. 이것을 보면 당시의 치료실과 기공실의 모양을 잘 알 수 있고 또 동시에 업계의 기술의 진보도 가늠하게 한다⁷⁰⁾.

당시의 유니트 제조자는 모리타(森田)와 요시다(吉田) 두 회사 외에 관동(關東)에 아오키(青木), 마에다(前田), 요시노(吉野), 미야우치(宮内), 미쓰테루(光輝), 고바야시(小林), 이노우에(井上) 등과 관서에 나카이(中井), 카메이(龜井), 다위안(大園) 등이 있었다⁷¹⁾.

1931년 10월 28일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

64)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유통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28쪽.
 中沢상점 창업자 中沢寅吉은 당시 최선단의 기술을 자랑한 포병공장 출신이다. 미스호야(瑞穂屋)에 한해서 하청공장이 되어 겹자, 봉물 등 금속세공물건을 일수에 받아들였다. 상점으로 전향한 것은 미스호야(瑞穂屋)가 폐업한 1903년으로 이후이다.

65) 『朝鮮齒科醫學會雜誌』, 9호: 1928. 9. 25.

66)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1호: 1929. 6. 30.

67) 『滿鮮之齒界』, 8권 1939. 간지

68)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유통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27쪽.
 中井치과상점 1894년 창업, 창업자는 中井安之助 이 때 17세였다. 中井은 양가의 성으로 본가는 大阪으로 한방약과 의료기계를 폭넓게 판매하고 있었다. 의료와는 원래 연이 있었다. 당시 전성을 자랑하고 있던 미스호야(瑞穂屋)의 활약모습에 촉발되어서 치과용품상의 길을 선택했다. 개점 초는 和歌山, 滋賀, 京都 방면에서 하였다.
 노력은 곧 회답되어져 大阪市 東区 淡路町에 점포를 열었다. 서쪽 일본일대의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서 큰 세력이 되었다. 수입 상호합의 제안자였고, 세화인이기도 했다.

69) 『朝鮮之齒界』, 1권 4호: 1930. 12. 20.

70)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75쪽.

71)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78쪽.

ORIGINAL ARTICLE

관공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치과 장비 및 기구 광고에 관한 연구

과센터가 준공되어 독일 릿터회사 제품의 치과 치료대 10대와 미국 S. S. 화이트사의 각종 기구가 들어오기도 했다⁷²⁾.

1931년 하타케야마(畠山清七)상점에서는 소형 유니트를 판매하였다. 이 제품은 기존의 배전반을 더 단순화하여, 에어 컴프레서 또는 에어 탱크에서 더운 공기 세척기(hot air syringe) 또는 분무기(spray), 치경(齒鏡) 등을 직접 연결하게 한 것이다. 이 제품은 제8회 일본의학회 치과학 분과회에 출품하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가격은 타제품에 비하여 저렴한 85원이었다⁷³⁾.

1932년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 기계부는 주요부품인 지멘스의 실버전기엔진을 제외한 부분을 조립 생산하게 되었다. “와돈트(Wadont)형 유니트”라 불린 장비는 아름다운 디자인, 사용이 간편하고, 견고하며, 능률적이고, 가격이 저렴하였다.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으로 도쿄(東京)고등치과의학교에서 120대를 상용한 이 유니트에는 실버전기엔진, 가스버너, 수도 스피튼, 와돈트형 스포트 라이트, 브라켓 테이블이 장착되었다. 가격은 지멘스사의 실버엔진 부착했을 때는 정가 580원이고, 실버엔진 제외했을 때는 정가 150원이었다⁷⁴⁾.

치료의자로 승리(Triumph)를 판매하였다. 승강경통을 원활하게 하여 하강 시에 덜컥거림을 제거하고, 내구

력이 강하며, 조작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게 하였다⁷⁵⁾.

1932년 모리타(森田)치과상점 경성지점이 기재를 판매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모리타(森田)치과상점의 조선·만주 총대리점으로 테라다(寺田)상회 치과부가 등재되어 있었다⁷⁶⁾.

나카자와(中澤) 치과제조사는 치과일체의 기계와 재료를 갖추고 판매하고 있었다⁷⁷⁾.

1932~1933년경 치료의자는 오늘날과 같은 모양의 형태, 기능을 가진 제품이 마에다(前田), 요시다(吉田), 모리타(森田), 하라(原), 나카이(中井) 등에서 완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마에다(前田)는 새로운 마호가니, 나무처럼 보이는 도장법을 개발 특허를 내서 상품 가치를 한 단계 향상시켰다⁷⁸⁾.

1933년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 기계부는 나카자와(中澤) 유니트의 총대리점이 되어 유니트를 판매하였다. 이 유니트는 전기엔진, 가스버너, 수도, 배타구, 라이트, 브라켓 테이블과 선풍기가 장착되었다⁷⁹⁾.

1933년 나카이(中井) 치과상점의 스메라 유니트는 작동기구(메카니즘)에서 뛰어난 진보를 가져왔다고 하였다⁸⁰⁾. 이 유니트는 상데리아가 부착된 호화판으로

72) Boots, J. L. The New Dental Clinic at Seoul, Korea『The Korea Mission Field』,vol. 28 no. 1, 1932. 7-9쪽.

73) 『朝鮮之齒界』, 2권 3호: 1931. 2. 20.

74) 『朝鮮齒科醫學會雜誌』, 8권 2호: 1932. 4. 20.

75) 『京城齒科醫學會雜誌』, 1권1-2호: 1932. 12. 31.

76) 『京城齒科醫學會雜誌』, 1권1-2호: 1932. 12. 31.

77) 『京城齒科醫學會雜誌』, 1권1-2호: 1932. 12. 31.

78) 업계사면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업협회, 1986. 83쪽.

79) 『京城齒科醫學會雜誌』, 2권 2호: 1933. 8. 1.

80) 『京城齒科醫學會雜誌』, 2권 2호: 1933. 8. 1.

『滿鮮之齒界』, 3권 1934.

81) 『京城齒科醫學會雜誌』, 2권 3호: 1933. 12. 30.

ORIGINAL ARTICLE

다른 제품과 비교되기도 하였다⁸¹⁾.

1934~1939년 마에다(前田)제작소는 일본에서 만든 에디슨 전기엔진이 부착된 유니트와 “뉴 크라운 치료의자”를 판매하였다. 동양인 체형에 맞춘 치료의자의 제원은 높이(바닥에서 의자 정상까지) 최고 2척 6촌 5부이고, 최저 1척 7촌 5부였다. 폭 2척이고, 깊이 4척이었다. 중량 의자만 245근이고, 포장 시에 420근이었다. 유니트의 제원은 높이 : 바닥에서 선풍기 상부까지 6척 4촌, 바닥에서 테이블 상부까지 3척 6촌, 바닥에서 타구 상부까지 2척 9촌 5부, 유니트는 124근이었다.

이 제품은 의장실용신안 등록번호의 일부 또는 몇 개를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특징은 후면 등받이(back rest)를 개량하여 환자가 어떠한 자세로 등을 잘 밀착하여도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였다. 또 하강 핸들에 개량하여, 하강시 종전 제품과 같이 발로 핸들을 밟을 필요가 없게 했다.

또한 마에다(前田)제작소는 에디슨 전기엔진을 개량하여 실용신안출원 중이었다. 모터 유지에 안전장치로 퓨즈장치, 지방 또는 아침, 저녁 전압의 강약이 있을 때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전압조절장치, 아마추어(모터의 중심)에 커버를 하여 기름 기타 수분을 막을 수 있는 아마추어 보조장치가 있어 모터가 타지 않도록 하였고, 관절을 만들어 좌우 움직임으로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하기 적당하게 했다. 또 서구식 일본식 모든 수술실에서 채광을 좋게 했다⁸²⁾.

1934~1939년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기계부는 “와돈트(Wadont)형 유니트”를 실용신안등록 제166119호로 등록하였다. 가격은 지멘스사의 실버엔진 부착했을 때는 정가 750원이고, 실버엔진 제외했을 때는 정가 250원으로 상승하였다⁸³⁾.

1934~1939년 하라(原)형제제작소는 “하라(原)식 파라곤 치료의자”를 생산하게 되었다. 외국제품을 단연코 몰아내고 자급자족하는 우수한 장치를 추가된 신기구로 구체화하였다고 했다⁸⁴⁾.

1934년 나카지마(中島)치과기계제작소는 높이 5척 3촌, 폭 1척 4촌, 깊이 1척 4촌 마호가니를 도색한 치과용박스를 판매하였다. 이것은 유니트를 단순화 한 것으로 콤프레샤, 배전반, 분무기가 들어 있었다. 정가는 290원이었다⁸⁵⁾. 1939년 이 치과용박스는 가격이 340원이 되었다⁸⁶⁾.

1939년 나카지마(中島)치과기계제작소는 “시국이 자재가 적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더 한층 치과보국을 위해 제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나카지마의 제품”이라고 시국을 유니트 판매 상승으로 등장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카지마(中島) 치과기계제작소는 고급형 치료장비를 공급하기도 했다. 고급 회전식 캐비넷 테이블, 엔진 상들리에와 내장형 컴프레서가 그것이다⁸⁷⁾.

1934년 조난(城楠)기계점⁸⁸⁾은 치과기계와 재료를

82) 『滿鮮之齒界』, 3권 1934.
『滿鮮之齒界』, 8권 1939.
『京城齒科醫學會雜誌』, 3권 3,4호: 1935. 12. 31.
83) 『滿鮮之齒界』, 3권 1934.
『滿鮮之齒界』, 8권 1939.
84) 『滿鮮之齒界』, 3권 1934.
『滿鮮之齒界』, 8권 1939.
85) 『滿鮮之齒界』, 3권 1934.
86) 『滿鮮之齒界』, 8권 1939.
87) 『滿鮮之齒界』, 8권 1939.

ORIGINAL ARTICLE

제조와 수출입하며, 리터형 100호 유니트 1세트, 리터형 고급 전기엔진과 리터형 오토매틱 에어 컴프레서 등을 판매하였다. 조난(城楠)기계점의 Y.S 100호 유니트 온수장치는 실용신안등록 제179416호를 얻기도 하였다⁸⁹⁾.

1934년 마키세(牧瀨)치과상점은 치과기계와 재료를 제조와 수출입하며, 도소매를 하였다. “No.5 유니트”는 조명등을 개량하여 밝고 과열되지 않으며 눈부시지 않는 장치로 엔진, 배전반, 선풍기를 제외한 정가 150원이었다. ‘마키세’ 전기엔진이 부착된 “No.5 유니트”를 구매할 때는 각 1대마다 Y형 캐비닛 1대 무상으로 증정하는 판매를 하였다. Y형 캐비닛은 시멘트 연화대, 기구케이스와 유리손잡이가 있는 높이 3척 2촌, 폭 2척, 깊이 1척 3촌으로 정가 28원이었다. 벽걸이형 마키세(牧瀨) 전기엔진은 정가 180엔이었다. 이외에도 마키세(牧瀨)치과상점은 승강 치료의자와 M형 캐비닛도 판매하였다⁹⁰⁾.

1934년 하치보쿠(八木)치과상회는 치과기계와 재료를 직수출입과 제조 판매하면서, 전기엔진, 가스버너, 수도, 배타구, 라이트, 브라켓 테이블과 선풍기가 부착된 4종의 유니트를 판매하였다⁹¹⁾.

1934년 아오키(青木)제작소는 PATENT 치료의자와 유니트를 제작 판매하였다⁹²⁾.

1934년 시바타(柴田)제작소에서는 벽걸이형 “스타 전기엔진”을 품질, 사용 후 보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 판매하였다⁹³⁾.

1934년 콘도(近藤)전기제작소에서는 피아레스 전기엔진, 배전반, 에어컴프레서, 전기레스를 판매하고 있었다⁹⁴⁾.

1935년 전기엔진도 수입품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가다(長田)전기를 중심으로 공장수도 10개 회사 전후로 늘었고, 제품도 외국제품에 손색이 없는 우수제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935년 나가다(長田 勉)은 나가다(長田)전기를 설립하였다. 설립시는 12대의 공작기계와 총 인원수 겨우 8명이었고, 설계와 제조에서 판매까지 모두 하여야 했다. 발매 당시의 전기엔진의 가격은 150엔, 월 생산 30~50대였다⁹⁵⁾.

당시의 전기엔진의 대부분은 리더 형이었으나 회전수는 최고 일본간당 3,800~4,000회전하고 4단 또는 3단식 제어에 따라 1,800, 2,600, 3,200, 3,800~4,000회전 등 적당히 조절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기엔진의 최종적 회전수는 7,000~20,000회

88)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유통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83쪽.

주식회사 城楠치과상회 (大阪市 西區 新町通 1丁目 2-8, 城守隆)

① 설립자 城榮造

② 1928년, 末吉橋通 3丁目에서 개인상점 城楠기계를 개점

③ 창업 1930년에 업무확충 때문에 順慶町 3丁目으로 이전. 1936년에는 수출업무를 시작해서 사업은 확대했다. 1938년에 博勞町에 신점포를 신축, 수출업무를 확충하는 한편, 생산부 (빅터화학공업소)를 개설해서 치과용 티스, 시멘트의 제조발매원이 되었다.

89) 『滿鮮之齒界』, 3권 1934.

90) 『滿鮮之齒界』, 3권 1934.

91) 『滿鮮之齒界』, 3권 1934.

92) 『滿鮮之齒界』, 3권 1934.

93) 『滿鮮之齒界』, 3권 1934.

『滿鮮之齒界』, 8권 1939.

94) 『滿鮮之齒界』, 3권 1934.

95)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95쪽.

ORIGINAL ARTICLE

전에는 아직 훨씬 미치지 못하나 그래도 종래의 발 밝기 엔진에 비하여, 능률 향상된 획기적 제품이었다⁹⁶⁾.

1935년 이와사 츠치모토(土本安治郎)치과상점⁹⁷⁾은 킹 덴탈 세트 즉 엔진 승강 체어, 킹 전기 엔진, 킹 50호 유니트, 특제 캐비닛을 특가 1 세트 450원에 판매하였다. 이것은 타 제품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이었다⁹⁸⁾.

이 후 1939년에는 같은 제품을 680원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⁹⁹⁾.

1936년 모리타(森田)치과상회는 일본제 유니트 “J.M. Units”를 만들었다. 이 유니트는 전기엔진, 가스버너, 수도, 배타구, 라이트, 브라켓 테이블과 선풍기외에 상들리에(4개의 전등불)를 밝히는 장치가 되어 있었다¹⁰⁰⁾.

1937년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기계부는 나카이(中井) 치과상점에서 제조한 나카이제 경치형 유니트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 납

품하였다¹⁰¹⁾.

1939년 오가와(小川)치과의료기제작소¹⁰²⁾에서는 유니트 3종류와 벽걸이형전기엔진, 치료의자, 이동식 나무의자를 제작 판매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캐비닛을 판매하였다¹⁰³⁾.

1939년 사토(佐藤)치과상회는 크로바 유니트 6종, 크로바 승강의자 2종, 크로바 전기엔진, 크로바 수압 자동 급수탱크 등을 판매하였다¹⁰⁴⁾.

2) 치과용 X선 발생장치

1901년 미국인 프라이스(Weston A. Price)는 X선이 치과의 근관치료에 필요한 사실을 처음 밝혀내었다¹⁰⁵⁾. 1915년 일본에 X선관(크릿지관)방식의 것이 수입되었다.

1920년 히다(肥田)전기공업은 의료용 X선 장치와

96)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81쪽.

97) 주식회사 이와사 土本치과상점 (東京都 文京區 本郷3丁目 27-12, 土本悟)

① 土本安治郎

② 1918년에 개업한 소매점의 창시자였다. 미스호야(瑞穂屋)의 2인자였던 狐塚清太郎 (후에 사의旭상회점주)에 치과재료에 대해 가르쳐, 26세에 이 길에 들어섰다.

③ 창업자는 당시 기재상에는 드물게 일찍부터 단결의 필요를 강조했다나 1920년에 필두 세할인이 되어 소매상 초의 단체「친화회」를 결성했다. 이와 같이 경력에 더해서 인정이 풍부한 덕망가이기도 했으므로 1925년에 동업회가 결성되고 나서도 1928년의 1기를 제외하고 매기 이사장으로 일해 “만년 이사장”이라 불렸다. 판매경쟁이 점점 과열화한 소하 초두의 업계로서 그 심정화에 또 지위향상에 다한 土本の 역할은 컸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상재 쪽도 상당한 것으로 창업 이래 서독 부슈사의 총 대리점으로서 수입 판매하는 등 대정말기의 소매점 중에서는 사 검업으로 일두지를 빼는 존재가 되었다.

98) 『京城齒科醫學會雜誌』, 3권 3,4호: 1935. 12. 31.

99) 『滿鮮之齒界』, 8권 1939.

100) 『京城齒科醫學會雜誌』, 5권 2호: 1936. 9. 30.

101) 『京城齒科醫學會雜誌』, 6권 1호: 1937. 7. 1.

102)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유통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28쪽.

小川상점 창업자 小川松次郎는 高橋金十郎의 합동회사에 참가한 한명이었고, 원래는 水野상점(水野金五郎)의 점원이었다. 水野의 본업은 氷屋이나, 宿沢도치에 투자하고 있던 관계로 부업으로 도치를 취급, 상당한 매상을 올렸다. 小川은 대단히 상재(商才)가 있었다. 치과재료에 관해서는 일절 책임이 맡겨지게 되었다. 그런 高橋의 부름이 있어 水野가 이것에 응한 것이므로 小川도 상사에 참가한 것이었다.

독립하고 싶던 小川은 참가한 그날에 바로 퇴사하고 반년 후에 赤坂田町에서 개점했다. 개업자금으로 3천엔이었고, 후에 성공해서 은좌에 진출했다. 수단가였던 小川이나, 실은 무필(無筆)이었다고 한다. 확실히 1868~1911년에 맞는 이야기였다.

103) 『滿鮮之齒界』, 8권 1939.

104) 『滿鮮之齒界』, 8권 1939.

105) 李漢水, 『東西齒學見聞記』, 석암사, 1977. 101쪽.

ORIGINAL ARTICLE

관공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치과 장비 및 기구 광고에 관한 연구

부속품의 일부를 제조하였다¹⁰⁶⁾.

1922년 데루우치(照内 昇)가 일본산 치과용 X선장치를 개발, 교토(京都)의 도진(島津)제작소에서 “호쿠도”, “스타르크”의 명칭으로 판매되었다¹⁰⁷⁾.

1924년 10월 치과용 X선 발생장치가 경성치과의 학교 부속의원 예진 및 특진실에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설치된 바 있었다. 독일 지멘스 X선장치는 5000 원이나 되는 고가로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었다¹⁰⁸⁾.

1926년부터 치과용 X선장치가 상품화 되었다. 일본대학 데루우치(照内 昇)의 지도로 제작된 테르텐트, 아오키(青木 貞亮)가 지도한 TO식 렌트겐, 모리타(森田)의 R형 렌트겐, 혼다(本多) 렌트겐, 시부야(渋谷) 렌트겐 등이 발매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장치는 고압 볼트가 흐르는 전기선이 기계의 상부에 있는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¹⁰⁹⁾.

1934년 시마즈(島津) 제작소는 치과용 X선 발생장치 B호를 개량·제작하여 발매하였다. 이 장치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제작법은 발명 특허 80575호를 얻었다. 이 변압기는 최고 전압 60Kv 1분간 연속 20MA의 용량으로 X선 진공관을 구강에 가까이 하여도 위험이 적게 고안되었다. 이 장치의 S형 쿨리지(Coolidge) 진공관은 고압전기 및 X선의 위험을 방어하는 백라이트 절연물 및 납 함유 유리 종추로 쌓여 있었다. 즉 종래의 치과용 X선 발생장치 A호보다 쿨리지(Coolidge) 진공관 가열 개폐기구, X선 개폐기,

전압 조정기, 밀리 전류계를 개선하게 되었다. 또한 지주를 자유로이 상하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어느 방향으로나 X선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정가 650엔이었다¹¹⁰⁾.

1934년 토요(東洋)의료화학연구소에서도 치과용 X선 장치를 제작·발매하였다. 전류의 충격과 X선의 위해작용을 줄이는 X선취급규격발령규정에 합치하도록 하였다. 정가 935엔이었다¹¹¹⁾.

1934년 도쿄(東京)렌트겐공사에서도 치과용 X선 장치를 제조 및 개조·수리 하였다. 신안특허와 의장 등록을 얻어 각 용도에 적합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성능이 우수하고, 조작이 간편하고, 견고한 제품이라 광고하였다. 치과용 X선 장치로 “제비붓꽃 다채색 X선 기계”를 제작 판매하기도 했다. 이 장치는 한국, 만주, 중국 대중의 취미, 미적 감각을 고려하여 치과용 「리터」형 기계의 관구용기를 「제비붓꽃」의 꽃(자색)과 잎(청록색)을 도안화한 형상이었다¹¹²⁾.

1934년경의 치과용 X선장치의 월 생산 대수는 전부 50대 정도였다. 중일전쟁으로 제조, 연구가 후퇴되었다¹¹³⁾.

3) 컴프레서

1923년 나카지마(中島忠太郎)는 나카지마(中島)제작소를 설립하고 로타리 컴프레서를 제작하고 적극적인 판매법을 도입하였다¹¹⁴⁾.

106)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66쪽.

107)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57쪽.

108)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 참윤, 2004. 93쪽.

109)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쪽.

110) 『滿鮮之齒界』, 3권 1934.

111) 『滿鮮之齒界』, 3권 1934.

112) 『滿鮮之齒界』, 3권 1934.

113)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84쪽.

114)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67쪽.

ORIGINAL ARTICLE

1932년 도쿄(東京)로얄전기제작소는 본품은 110 volt, 50~60 cycle, 1/6 마력, 3.5 amp의 컴프레서를 판매하였다. 정가 300엔이었다. Hot Air Syringe는 별도였다¹¹⁵⁾.

1934년 모리타(森田), 요시다(吉田)가 오토메틱 콘프레셔와 전기레스를, 1912년부터 콘도(近藤)전기가 외국제품으로부터 모방 제작하던 것으로, 질, 량 모두에서 완전한 일본 상품화를 하였다¹¹⁶⁾.

1934년 나카지마(中島)치과기계제작소는 컴프레서를 실용신안 의장등록을 한 나카지마(中島)식 Hot Air Syringe를 청정장치 및 시린지 포함하여 정가 160원에 판매하였다. 블로우 파이프용 장치 15원, 분무기 장치 25원 별도였다¹¹⁷⁾. 1939년 이 컴프레서는 170엔으로 가격이 인상 되었다¹¹⁸⁾.

1935년 나가다(長田 勉)는 나가다(長田)전기를 설립하였다. 전기엔진에 이어서 오토메틱 콘프레셔(1937년)를 제조하였다. 1944년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¹¹⁹⁾.

1934~1939년 토요(東洋)의료화학연구소의 동양식 컴프레서는 Hot Air 공기정화장치와 배전반이 있

었고, 소음이 적었다. 그 후 캐비넷형 컴프레서를 제작하여 소음을 극소화하였다¹²⁰⁾.

4) 주사침

1906년부터 모토기(本木梅治郎)는 주사침을 제조했으나, 그때의 제품은 잘 굽어서 주사액이 새었고, 부러지기까지 했다¹²¹⁾.

1921년 모토기(本木梅治郎)는 시계의 태엽용수철에서 주사침을 만들었다. 이것은 획기적인 주사침이 되었고, 이후 시계의 태엽용수철은 스텐레스 강으로 바뀔 때까지 주사침의 재료로 사용되었다¹²²⁾.

1923년 코하타 주사침이 생산되었다¹²³⁾.

1928년 노무라(野村)사출주사침제작소는 “게츠에누(月工) 표준주사기”와 “게츠에누(月工) 주사침”을 판매하였다. 동일 공장에서 나오는 주사기와 주사침으로 평화기념박람회에서 금탑수상과 대례기념박람회 우량국산상을 수상하였다고 선전하였다¹²⁴⁾.

1931년 단연 우수한 철침 끝 부분을 가진 “게츠에누(月工) 표준주사기”와 “게츠에누(月工) 주사침”을 다이쇼·쇼와 2대 박람회에서 금탑 수상하였다. 또

115) 『朝鮮之齒界』, 2권: 1931.

116)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81쪽.

117) 『滿鮮之齒界』, 3권 1934.

118) 『滿鮮之齒界』, 8권 1939.

119)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95쪽.

120) 『滿鮮之齒界』, 3권 1934.

『滿鮮之齒界』, 8권 1939.

121) 1906년 本木梅治郎이 동경신전에서 의료용 주사침의 제조를 시작하였다. 치과로 진출한 해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박람회의 심사에서 등외로 떨어져 일념 받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므로 1919~20년경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 후는 후술한 대로 재료, 제법면에서 치과용 주사침의 개량에 공헌하였다. 前田을 추대하고 공업회를 설립, 발전에 힘을 썼다. 대진재의 직전, 현재지의 北區中里町으로 이전했다. 현재는 2대 清人を 거쳐 3대 健이 本木 주사침 제작소로서 부업을 잇고 있다. 本木の 문하에서 코하타 주사침의 渡辺音松이 나왔다.

122)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56~57쪽.

123)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37쪽.

124) 『朝鮮齒科醫學會雜誌』, 9호, 1928. 9. 25.

ORIGINAL ARTICLE

한 국가적으로 일치단결하여 산업 합리화하는 제품이라 했다¹²⁵⁾.

1931년 오오구마(大熊)의과기계점은 백색강철 주사침을 1. 절대 녹슬지 않는 것, 2. 침끝이 예리하고 탄력성이 풍부한 것, 3. 강철 주사침을 능가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강철제, 순니켈제, 합금제, 백금제 등 각종 주사침을 판매하였다¹²⁶⁾.

1932년 노무라(野村)사출주사침제작소는 “게츠에누(月工) 표준주사침”과 “게츠에누(月工) 주사침” 선전에 종교를 이용하기도 했다. “신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게츠에누(月工)의 신용도 절대적이다. 절대를 믿는 자에게 불경기의 고민은 없다.” 신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게츠에누(月工)의 신용도 절대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절대를 믿는 자에게 불경기로 고민할 것은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¹²⁷⁾.

1933년 일본 제일이 아니라 세계 제일이라 주사침과 주사기를 선전하였다¹²⁸⁾.

1935년 산화 되지 않는 백금강침과 우량한 강철침을 동일가로 판매하게 되었다¹²⁹⁾.

주사통의 엠에스, 성성당(星盛堂)은 모두 의료용에서 치과용으로 진출했다. 치과용의 생산은 3할 정도였다. 1936년 와타나베(渡?利八)은 탐을 설립하고,

가까운 곳에서 가내공업으로 주사기를 의료용, 치과용 주사통, 주사침을 제조하였다. 치과용의 생산은 3할 정도였다¹³⁰⁾.

1938년 모토기(本木)주사침제작소는 하타(旗)표 주사침을 제작 판매하였다. 영국 최우수 강철로 만든 주사침은 박람회에서 우량 국산품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주사침은 침끝, 경도, 탄력 모두 우수하며 각 소독약에 잘 견디어 용기 그대로 소독 가능하고 녹 쓸 염려가 없었다. 성형강화 주사기는 최신 화학으로 강화된 철제를 최신 성형기계로 성형하여 절대 녹 쓸지 않았다. 초불산화강 추출 주사기는 카본, 요오드, 염화제2수은에도 부식되지 않고, 주사침의 끝, 경도, 탄력이 모두 강철 침과 동일하였다¹³¹⁾.

1939년 모토기(本木)주사침제작소는 전장에서 휘날리는 깃발에 비유하여 하타(깃발)표 주사침을 선전하기도 했다.

“만주 북쪽 들녘에
우리 일장기는 휘날리고
전 세계의 치료계는
우리 하타(깃발)표
주사침에 쓰러진다¹³²⁾.”

또한 독일은 크롬강으로 만들어 절대 녹슬지 않고, 절삭력과 내구력이 우수한 주사침을 제작하기도 했다.

125) 『朝鮮之齒界』, 2권, 1931.

126) 『朝鮮之齒界』, 2권, 1931.

127) 『朝鮮齒科醫學會雜誌』, 8권 2호, 1932. 4. 20.

『京城齒科醫學會雜誌』, 1권 2호: 1932. 12. 31.

128) 『朝鮮齒科醫學會雜誌』, 9권 3,4호, 1933. 12. 20.

129) 『京城齒科醫學會雜誌』, 4권 3,4호: 1935. 12. 31.

130) 업계사면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96쪽.

131) 『京城齒科醫學會雜誌』, 7권 2호: 1938. 8. 30.

『滿鮮之齒界』, 8권, 1939.

132) 『滿鮮之齒界』, 8권, 1939.

ORIGINAL ARTICLE

우량국산품으로 금상을 수상했다하며, 칩 끝이 예리하며, 탄력이 있고, 강인하다 하였다. 제품 종류는 초불산화강칩, 불산화강칩, 사출강화철칩, 강철칩, 18금칩, 백금칩, 니켈칩이 있었다. 바늘의 굵기는 1/2에서 1/5mm와 전달마취 칩이 별도로 판매되었다¹³³⁾.

5) 소 기구와 왕진용 세트

1922년 오야마(小山鎌吉)는 오야마(小山)치과기계 제작소를 설립하고 핀셋트 등을 제작하였다¹³⁴⁾. 이마오카(今岡)제작소도 기공 기구를 제조하였다¹³⁵⁾.

1923년 나카시마(中島忠太郎)는 나카시마(中島)제작소를 설립하고 치과용 소기계를 제작하고 적극적인 판매법을 도입하였다¹³⁶⁾.

1924년 이시즈카(石塚政吉)는 이시즈카(石塚)제작소를 설립하고 봉합 물품, 메스와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였다¹³⁷⁾.

1926년 오야(大矢)치과기계제작소, 1926년 야정(八町)제작소, 1927년 요시노(吉野)제작소는 메스, 발치 겸자, 골 겸자, 핀셋트 등 외과 기구를 제조하였다¹³⁸⁾. 이 겸자, 프라이어 등의 기구를 제작한 곳은 아

이다(会田)제작소, 교리츠(協立), 시오다(塩田)치과기계가 있었다¹³⁹⁾.

1926년 이케다(池田)제작소, 사이토(齋藤)치과기계, 쓰가와라(菅原)치과정기, 타카하시(高橋)제작소, 하시모토(橋本)제작소는 봉합 물품을 제조했고¹⁴⁰⁾, 이마오카(今岡)제작소는 치경을 제조했다¹⁴¹⁾.

1930년 나카니시(中西)치과기계와 나카무라(中村)제작소는 핸드피스와 콘트라앵글을 전문 제작하고 있었다¹⁴²⁾.

1932년 나카이(中井)치과상점은 3가지 용도의 인스트루먼트, 코튼롤 용기와 오물통 겸용 용기를 판매하였다¹⁴³⁾. 1934년 나카이(中井)치과상점은 산토쿠 용기 부착용 전기버너를 판매하였다¹⁴⁴⁾. 1934년 요시다(吉田)제작소는 여러 종류의 증화 캔을 제작 판매하기도 하였다¹⁴⁵⁾.

1934년 니시카와(西川)제작소, 기타하라(北原)제작소, 오히라(大平)제작소는 치과용 소독기, 소독케이스를 제작하고 있다¹⁴⁶⁾.

1935년 산쿄(三共)주식회사는 카베시마(壁島)식 건조 혈액형 측정기를 판매하였다. 한 방울의 혈액으

133) 『滿鮮之齒界』, 8권, 1939.

134)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67쪽.

135)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99쪽.

136)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67쪽.

137)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68쪽.

138)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68, 97쪽.

139)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96-97쪽.

140)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98쪽.

141)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99쪽.

142)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98-99쪽.

143) 『京城齒科醫學會雜誌』, 1권 2호: 1932. 12. 31.

144) 『滿鮮之齒界』, 3권, 1934.

145) 『滿鮮之齒界』, 3권, 1934.

146)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98쪽.

ORIGINAL ARTICLE

로도 충분히 반응하여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한 측정기였다¹⁴⁷⁾.

1936년 오오토타(大屋)치과기계는 치과용 금관협자(鉗子)를 전문 제조하고 있다¹⁴⁸⁾.

1939년 이시리(井尻)치과상사는 야지마식 루트 엘리베이터회를 판매하였다¹⁴⁹⁾. 산에이(三榮)치과상회는 물자절약을 하자며 산에이 2호강 제품인 엑스카베이터 스케일러류를 판매하였다¹⁵⁰⁾.

전쟁을 수행하는 일제에게는 왕진용 세트의 구성은 필요한 일이었다. 1940년 2월 모리타(森田)치과상점에서는 전선에서도 후방에서도 갖추어야 할 왕진용 세트를 만들기도 했다. 왕진바스켓 20엔, 기구케이스 26엔, 약통 5엔, 알콜 램프 2엔으로 4품목 1세트에는 합계 50엔이었다.

왕진바스켓은 실용신안등록원 제25858호 였다.

1. 최소 설계로 최대 포장하도록 하였다.
(가로 25.5cm, 세로 23cm, 길이 6cm)
2. 휴대가 간편하였다.(무게 총중량 3.3kg)
3. 만족스러운 코튼롤 용기가 있었다.
4. 쓸모 있게 나뉜진 약통에 약병 3개와 작은 약병 4개가 있었다.
5. 감자, 익스플로러 등을 위한 예비 공간이 마련되었다. 정가 20원이었다.(단 알콜램프 및 약통 기구케이스 제외)

기구케이스는 실용신안등록원 제25859호였다.

1. 엑스카베이터, 2. 시마네식 탐침(3개), 3. 판상 설압자, 4. 소식자(2개), 5. 브로치 홀더(2개), 6. 미니멈 시린지, 7. 1/4주사기, 8. 더블엔드플러저(3개), 9. 치은 메스, 10. 치료 핀셋, 11. 미러 핸들
12. 2cc주사기, 13. 워터 시린지, 14. 파이로존 침이 들어 있었다.

용적은 가로 22.5cm, 세로 10.5cm, 깊이 5.5cm로 총중량 1.4Kg이었다. 정가는 26원이었다¹⁵¹⁾.

6) 구강청소 겸 치조농루 치료기, 적외선등, 태양등, 초단파치료기

1934년 8월 구강의 청결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로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기계부는 구강청소 겸 치조농루 치료기(던롭장치)를 제작 판매하였다. 이 기기는 도쿄(東京)고등치과외학교 교수 히가키린쵸(檜垣麟三) 지도로 산소살균 수세조 및 산소분사를 하게 하였다. 용도는 일반 구강청소, 치조농루 치료, 구강수술 준비에 사용 등 응용범위가 넓고, 조작이 간편하여, 치료시간의 단축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⁵²⁾.

적외선의 살균작용을 이용한 등(燈)이 판매되기도 하였다. 1934년 쇼와(昭和)상회 경성출장소에서는 솔라램프 적외선등(赤外線燈)을 판매하였다. 정가는 중형 솔라램프 스탠드식 135엔, 소형 솔라램프 스탠드식 100엔이었다¹⁵³⁾.

147)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1권 1호, 1935.1.20.

『滿鮮之齒界』, 8권, 1939.

148)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97쪽.

149) 『滿鮮之齒界』, 8권, 1939.

150) 『滿鮮之齒界』, 8권, 1939.

151) 『滿鮮之齒界』, 8권 1939.

152) 『京城齒科醫學會雜誌』, 3권 2호: 1934. 8. 30.

『滿鮮之齒界』, 8권 7호, 1939.

ORIGINAL ARTICLE

1934년 아오키(青木)치과상회에서는 선-카본 태양등을 판매하였다. 미국 내셔널카본회사 제품으로 특히 에버레디카본 사용한 선-카본 태양등은 치과에서의 적응증은 치조농루, 치조농양, 골막염, 치수염, 치근막염, 구강점막질환, 발치후의 처치 등 그 외 응용범위가 광범위하였다¹⁵⁴⁾.

선사인 A 카본은 6월 고산에 비치는 일광과 같은 스펙타클한 빛을 발한다. 자외선, 적외선을 고르게 비추어 구강내부 외협부까지 적외선으로 국소 충혈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자외선의 살균 진동 배설 등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슈퍼턴 C 카본은 강력한 자외선을 낸다, 구강내 점막질환, 발치 기타 수술후 처치, 치조농루 등에 직접 국부에 조사하여, 자외선의 절대적인 화학작용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E 카본은 풍부한 자외선을 발하며, 주로 염증성 질환에 이용하도록 한 것이 그 특징이었다.

일본대학 치과의학 교장 카아이(川合涉)와 도쿄(東京)치과의학전문학교 교장 니시무라(西村豊治)가 추천하였다. 정가는 치과용 812형(보호안경 2개, 구강조사통 2개, A·B·C 카본 각 10개 포함)이 180원이었다¹⁵⁵⁾.

초단파를 이용한 치료기가 근관치료 및 구강영역의 염증 치료에 사용되었다. 1936년 토요(東洋)의료화학 연구소는 동양식 A형 토라덴트를 제작 판매하였다. “전파치료는 진정한 초단파가 아니면 절대로 체내

심부의 침투열작용에 의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입력전압 100~110V, 환자회로출력 100~300W, 파장 6~25m, 주파수 180,000,000C인 치료기였다. 단파 및 초단파의 발진 조절이 자유롭고, 초단파는 환자가 옷을 입은 채로 치료할 수 있다. 특종 발진관구를 고안하였고, 고장 없고, 조작 간편하며, 절대 위험 없다고 하였다.

치과의 용도로는 치수의 실활, 절개 및 절제법, 근관소독 및 건조, 지혈, 구강치아의 질환 침투치료 등이었다. 경성치과학회에서는 초단파치료기에 대한 구조와 해설 그리고 효력에 대하여 연구도 하였다¹⁵⁶⁾.

내과, 외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다. 정가는 1936년 450원에서, 1937년 850원을 받았다¹⁵⁷⁾.

1937년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기계부는 위험하지 않고, 초단파전류 발생이 확실하고,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고장이 적다는 지멘스형 초 단 파 투 열 치 료 장 치 (Siemens-Dental-UltrathRm)를 제작 판매하였다. 치과에 용도는 치조농루, 급성화농성치근막염, 치근육아종, 상악동저농증, 악골골막염, 악골골수염, 구내염, 치은염, 치아 및 악골의 창상, 3차 신경통, 히스테리성 아간긴급, 수술후 동통 등에 사용되었다¹⁵⁸⁾.

7) 금관 제조기, 전기로, 주조기, 교합기, 전기레스, 기공전용의 롤

153) 『滿鮮之齒界』, 3권 1934.

154) 『滿鮮之齒界』, 3권 1934.

155) 『滿鮮之齒界』, 8권 1939.

156) 『滿鮮之齒界』, 5권 10호, 1936. 39-41쪽.

동양식 「토라덴트」 (초단파치료기)의 구조와 해설, 原菱男

滿鮮之齒界』, 9권 10호, 1940. 25-36쪽.

原瀨式 無熱 초단파 자외선(냉석영등)의 효력에 대하여, 牧山正文, 横山五郎, 千田英三, 河野暢雄

157) 『京城齒科醫學會雜誌』, 5권 2호: 1936. 9. 30.

『京城齒科醫學會雜誌』, 6권 1호: 1937. 7. 1.

158) 『京城齒科醫學會雜誌』, 6권 1호: 1937. 7. 1.

ORIGINAL ARTICLE

1927년 7월 나카자와(中澤)치과기계 제조사는 신안 특허를 얻은 나카자와(中澤)식 샤프형 무납 금관 제조기를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이 제조기의 특징은 착출되는 금관은 윗면에 있는 부분을 주시할 수 있고, 구치공 내면은 중앙부를 향하여 용기해 있고, 착출된 크라운은 주변보다 저작면 크라운 부위로 한층 두껍고, 주름을 만들지 않는다. 조작이 아주 간편하고, 안정되고, 크라운이 견고하고 아름답다. 정가는 40원으로 금속 원판과 타출기 2개를 포함하여 40원이었다¹⁵⁹⁾.

1938년 나카자와(中澤)치과기계 제조사는 무봉금관을 판매했다.

장점은 첫째, 누구나 빠르게 잘 할 수 있다.

둘째, 강력가스가 필요 없어 만주와 한국에 적합하다.

셋째, 잘 팔린다는 것이었다. 정가 35엔이었다¹⁶⁰⁾.

1935년 12월 쇼후(松風)도치제조주식회사는 도제작업에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전기로를 판매했다¹⁶¹⁾.

1933년 4월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기계부는 타카시마식(高島式) 주조기를 판매했다¹⁶²⁾.

1939년 니혼(日本)치과상사는 저캐럿 금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안특허 출원번호 제 13996호의 주형식 간이 급냉기를 발매하기도 했다. 종래 다수의 20금 프레스 메탈 사용처 중에는 저위 금치리에 필요한 급냉각의 상태를 얻기 힘들었다. 때문에 완성이 어렵고, 합금조직에 균등성이 결여되어 표면이 희고, 금이

너무 단단한 것 등 불만스러운 경향이 있었다. 이 기기는 편차 없이 아주 쉽게 저캐럿 금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가는 7원이었다¹⁶³⁾.

1913년 아키야마(秋山松次郎)가 설립한 아키야마(秋山)치과기구제작소에서 교합기 등을 제작한 바 있었다¹⁶⁴⁾.

1922년 오가와(小川鎌吉)는 오가와(小川)치과기계 제작소를 설립하고 교합기를 제작하였다¹⁶⁵⁾.

1931년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기계부는 타카시마식 실용간이 교합기를 판매했다. 교합기의 명칭은 각각 이러했다.

- (1) 상악 석고 모형 유지부 (2) 하악 석고 모형 유지부
- (3) 정중 표준 돌기 (4) 나선 (5) 측방운동방지돌기 (6) 관절부 고정부 (7) 관절부 가동부 (8) 나선 (9) 횡봉 (10) 관절부 평면판 (11) 각선 (12) 측유두정¹⁶⁶⁾

1931년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기계부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서 지정한 개량 교합기를 판매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수 타카시마(高島義人)가 현대 각종 교합기의 특징·장점·결점을 취사선택한 이 교합기는 취급이 간단하였다¹⁶⁷⁾.

1912년부터 콘도(近藤)전기가 전기레스를 외국제품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 1933년 야마타(山田)치과기계점에서 기공실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TY

159) 『朝鮮齒科醫學會雜誌』, 4호: 1927. 7. 25.

160) 『京城齒科醫學會雜誌』, 6권 4호: 1938. 2. 28.

161) 『京城齒科醫學會雜誌』, 4권 3,4호: 1935. 12. 31.

162) 『京城齒科醫學會雜誌』, 2권 1호: 1933. 4. 1.

163) 『滿鮮之齒界』, 8권 1939.

164)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66쪽.

165)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 1986. 67쪽.

166) 『朝鮮之齒界』, 2권: 1931.

167) 『朝鮮之齒界』, 2권: 1931.

ORIGINAL ARTICLE

전기레스를 발매하였다. 가격은 95엔 이었다. 전기식 조절은 3단 변환되며, 부속품으로 chuck 2종을 포함하였다. 제원은 100 V, 1 amp, 50~60 cycle, 3000 회전이였다¹⁶⁸⁾.

1934년 모리타(森田), 요시다(吉田)가, 질, 량 모두에서 완전한 전기레스 일본 상품화를 이루었다¹⁶⁹⁾.

1934년 나카지마(中島)치과기계제작소에서는 전기레스를 정가 35원에 판매하였다. 그 후 1939년 같은 제품을 43엔으로 인상하였다¹⁷⁰⁾.

1936년 나가다(長田)전기는 전기레스를 제조하였다¹⁷¹⁾.

1939년 오가와(小川)치과기계점에서는 육군성에서 사용되는 전기레스를 판매하였다. 이 전기레스는 전기소비량이 최소이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였다¹⁷²⁾.

1927년 요시다(吉田)가 개발한 기공전용의 롤도 주목된 제품이었다. 이제까지의 롤에 비교해서 보다 작고 얼룩이 없는 제품이었다¹⁷³⁾.

1934년 한국인 박덕평(朴德平)이 운영하는 중앙치과상회(中央齒科商會)는 조선인 중의 제1인자로서 만주 봉천까지 진출하여 활동 하였다.

1935년 한남수(韓南洙)는 경성치과상회(京城齒科商會)를 개업하여 운영을 잘 하였다. 이에 일본인 재료상은 이를 질시하여 앞으로 조선인 개업을 방지하고

자 경성치과재료상조합을 결성하였다. 이것이 재료상 조합의 처음이었다. 이를 통하여 조선 상인에 대한 압박의 제일보였다.

그러나 1936~1937년에 박원규(朴元圭)의 소화치과상회(昭和齒科商會), 김동표(金棟杓)의 조일치과상회(朝日齒科商會), 이덕현(李惠顯)의 천일치과상사(天一齒科商社), 노갑성(盧甲成)의 공영치과상회(共榮齒科商會), 황영기(黃永基)의 삼경치과상회(三京齒科商會) 등의 치과재료상이 개업하였다. 중일전쟁을 전후로 서울에 치과재료상이 20여 곳이였다. 지방을 합하면 40~50 곳이 되었다. 이때가 치과재료상의 황금시대라 하겠다¹⁷⁴⁾.

일본인들은 우리 동포의 개업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목적을 달성치 못하자 경성재료상조합을 해산하고 조선치과재료상조합으로 발족하여 한국인 치과재료상을 그 산하에 들어가게 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착취하고자 일본인들은 일본에 있는 큰 상점과 밀약 제휴하였다. 치과재료를 조선인에게 직접 매매하지 않고 일본인의 손을 거쳐 나오게 함으로써 중간도매이득을 음모한 사실을 이덕현은 일본에 가서 알았다.

즉 일본인이 동경에 있는 상점에 가서 조선인이 재료 주문을 하거든 보내지 말고 일본인 상점으로 보내서 사게 하라고 하였다. 한없는 증오를 느끼었다. 이 사실을 밝히려 하였더니, 그보다 앞서 「이덕현이 일본 가서 조선 사람이 주문하면 보내지 말고 천일치과상사

168) 『京城齒科醫學會雜誌』, 2권 1호: 1933. 4. 1.

169)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의, 1986. 81쪽.

170) 『滿鮮之齒界』, 3권 1934.

『滿鮮之齒界』, 8권 1939.

171)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의, 1986. 95쪽.

172) 『滿鮮之齒界』, 8권 1939.

173)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회의, 1986. 83쪽.

174) 『朝鮮齒界』, 제1권 제1호, 1946. 82쪽.

1940년 4월 26일 조선치과용품상조합이 설립되었을 때에 전국 38개 회원 중에 한국인 30명과 일본인 8명이 있었다.

ORIGINAL ARTICLE

(天一齒科商社)로만 보내라」하였다고 맹랑한 헛소문을 유포 시켰다.

전쟁 중에 치과재료가 통제되고 보니 조합은 한층 더 일본인 중심이 되고 세금표준이 치과재료 배급율이 되었다. 배급은 조선인 협력자들만은 다소 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욕된 비율이었다. 즉 조합인 33인중 조선인이 25인이고 일본인이 8인이었으나, 배급 비율은 조선인 40%, 일본인 60%였다.

최후에 발악으로 기업정비라는 명목으로 조선인 치과재료상은 축소 통합하여 6곳으로 만들었다. 일본인 치과재료상은 겨우 2인만 정리하는 실정이었다¹⁷⁵⁾.

4.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의 치과 장비 및 기구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광고 되어진 치과 장비 및 기구에 대하여 역사적인 발전과정과 그 가치를 평가해 보았다.

첫째는 도입기로 치과진료가 도입된 후부터 1931년 9월 18일「만주사변」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도입기는 일본에서 수입품 치과 장비 및 기구 만능시대를 거쳐 일본의 국가주의 풍조로 일본 상품의 애용, 그리고 치과 장비 및 기구의 일본 상품화를 촉진하였던 시기이다.

일본의 치과 장비 및 기구는 기술자의 모방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체형에 맞게 연구되었고, 그리고 과욕은 절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알려준다.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의 재난은 치과 장비의 발전에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이 재난을 계기로 단체결성의 기운이 높아지고, 일본 상품 장려의 소리가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1927년 1월 1일 건강보험법 시행과 1928 6월 4일 제1회 「충치예방데이」로 국민의 치과질병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치과 장비 및 기구 수요는 증가 되었다. 일본 상품은 가내공업은 공장 체제에 도달하게 하였다.

1927년 모리타(森田)의 유니트는 일본산 유니트의 효시가 되고, 1931년경 요시다(吉田)가 일본인의 인체공학에 맞춘 독자적인 타입의 제품으로 주목받았다.

둘째는 소비시장 확대기이다. 즉 만주사변 이후부터 1938년 일본에서 후생성이 설립되어 통제를 행하기 이전의 시기이다. 1931년 이후 만주,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기 시작하고, 군납도 점점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의 생산고는 증가했다. 대륙진출은 일본의 국책이며 또 일본인의 꿈이기도 했다. 또한 1931년 12월 금수출재금지 수입품의 가격을 급등하게 했고, 수요는 일본 상품을 찾게 한 시기이다.

1933년 1월 치과재료규격이 논의 되었고, 1935년 전후해서 치과재료상 설립이 확대되었다. 치과 장비 및 기구의 종류도 늘어 새로운 치과 장비 및 기구가 나오게 되었다.

셋째는 통제기이다. 1937년 11월 1일 중일전쟁의 발발로 일제는 수입품을 막아내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에 나서자고 하며 치과재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1938년 1월 11일 후생성이 설립되고,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등으로 통제를 시작한 시기부터 광복이전까지의 시기라 할 수 있다.

1939년 나카지마(中島)치과기계제작소는 “시국이 자재가 적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더 한층 치과보국을 위해 제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나카지마의 제품”이라고 시국을 유니트 판매 상술로 등장시켰다.

1940년 이후 통제가 급격히 진행되고, 「일본치과기계공업통제조합」등의 단체가 생기어 자재통제와 공정가격제도와 규격통일을 다루었다. 1943년 태평양전쟁 중에 설비가 있는 공장 요시다(吉田), 모리다(森田), 마에다(前田), 나가다(長田) 등은 군 지정공장으로서 군

175) 『朝鮮齒界』, 제1권 제1호, 1946. 82쪽.

ORIGINAL ARTICLE

수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마침내 일본의 국력은 생산도 배급도 한계에 다다르고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

일제가 패망 후 나라는 독립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소비시장이었던 치과 기자재의 산업은 아무 것도 없던 상태이었다. 현재는 치과 기자재의 산업도 치과계와 마찬가지로 세계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전단계인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광고 되어진 치과 장비 및 기구를 돌아보는 일은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광고 되어진 치과 장비 및 기구의 종류에는 1) 치료의자, 유니트와 캐비넷 2) 치과용 X선 발생장치 3) 컴프레서 4) 주사침 5) 소 기구와 왕진용 세트 6) 구강청소 겸 치조농루 치료기, 적외선등, 태양등, 초단파치료기, 7) 금관 제조기, 전기로, 주조기, 교합기, 전기레스, 기공전용의 롤 등이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치료의자, 유니트와 캐비넷을 광고한 곳은 반센(滿鮮)치과상회처럼 서울에 상점을 두고 치과기계 판매와 수리, 그리고 치과재료를 취급하였다.

또한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는 일반의료를 취급하던 곳에서 치과기계부를 확장하게 되었다. 그 활동은 구미 각국 유명 의료기계회사 특약 대리점으로 수입, 조립, 생산, 납품, 판매하고 있었다. 조립 생산한 장비는 “와돈트(Wadont)형 유니트”, “치료의자 승리(Triumph)”라 불리웠다.

나카자와(中澤)는 수입품의 재고가 풍부하며, 자가 제품 정비를 하였다. 점포에 진열 판매하며, 통신판매도 하였다.

1927년 모리타(森田)가 미국 리더사의 트라이덴트 유니트를 모델로 제작한 것이 본격적인 일본산 유니트의 효시가 되었다. 모리타(森田)는 이 유니트 외에 철골의자와 리더 형 엑스레이, 전기엔진, 콘프레서 등을 제조

하였다. 1932년 모리타(森田)는 경성지점을 개점하여 기재를 판매하게 되었다. 1936년 모리타(森田)치과상회는 일본제 유니트 “J.M. Units”를 만들었다.

1931년 요시다(吉田)제작소는 일본인의 인체공학에 맞춘 독자적인 타입의 유니트를 개발하였다. 1935년 발행의 종합카탈로그는 당시의 치료실과 기공실의 모양을 잘 알 수 있고 또 동시에 업계의 기술의 진보도가 높게 한다.

유니트 제조자는 모리타(森田)와 요시다(吉田) 외에 아오키(青木), 마에다(前田), 요시노(吉野), 미야우치(宮内), 미쓰데루(光輝), 고바야시(小林), 이노우에(井上), 나카이(中井), 카메이(龜井), 다위안(大園), 나카지마(中島) 등이 있었다.

치료의자 제조자는 마에다(前田), 요시다(吉田), 모리타(森田), 하라(原), 나카이(中井) 등이 있었다.

1930년 토요(東洋)치과상회, 1931년 하타케야마(畠山清七)상점, 1933년 나카이(中井)치과상점, 1934년 죠난(城楠)기계점, 마키세(牧瀬)치과상점, 하치보쿠(八木)치과상회, 아오키(青木)제작소, 시바타(柴田)제작소, 1935년 츠치모토 안지로(土本安治郎)상점, 1939년 오가와(小川)치과의료기계제작소, 1939년 사토(佐藤)치과상회에서는 치료의자와 유니트를 제작 판매하였다. 1934년 콘도(近藤)전기제작소와 1935년 나가다(長田)전기에서는 전기엔진을 외국제품에 손색이 없는 우수 제품으로 만들어 수입품을 완전히 몰아내었다.

치과용 X선 발생장치는 수입되던 장비의 부속품이 제조되다가 1922년 데루우치(照内 昇)가 일본산 치과용 X선장치를 개발되어 “호쿠도”, “스타르크”의 명칭으로 판매되었다. 1926년부터 치과용 X선장치가 상품화가 되었다. 당시의 장치는 고압 볼트가 흐르는 전기선이 기계의 상부에 있는 그대로 설치되어있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 1934년 시마즈(島津)제작소, 토요(東洋)의료화학연구소와 도쿄(東京)윈트겐공사는 치과용 X선 발생장치를 개량·제작하여 발매하였다. 1934

ORIGINAL ARTICLE

관공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치과 장비 및 기구 광고에 관한 연구

년경의 치과용 X선장치의 월 생산 대수는 전부 50대 정도였다. 중일전쟁으로 제조, 연구가 후퇴되었다.

1923년 나카지마(中島)제작소는 로타리 컴프레서를 제작하고 적극적인 판매법을 도입하였다. 1932년 도쿄(東京)로얄전기제작소, 1934년 모리타(森田), 요시다(吉田), 나카지마(中島)치과기계제작소, 토요(東洋)의료화학연구소 1937년 나가다(長田)전기에서 오토메 텍 콘프레서를 제조하였다.

1906년부터 모토기(本木梅治郎)는 주사침을 제조했으나, 그때까지의 제품은 잘 굽어서 주사액이 새었고, 부러지기까지 했다. 1921년 모토기(本木梅治郎)은 시계의 태엽용수철에서 주사침을 만들었고, 1923년 코하타 주사침이 제작되었다. 1928년 노무라(野村)사출주사침제작소, 1931년 오오구마(大熊)의과기계점, 1936년 탐, 1938년 모토기(本木)주사침제작소는 하타(旗)표 주사침을 제작 판매하였다. 1939년 모토기(本木)주사침제작소는 전장에서 휘날리는 깃발에 비유하여 하타(깃발)표 주사침을 선전하기도 했다.

용기와 소 기구 제조 판매사는 다양하였다. 1922년 오야마(小山)치과기계제작소는 핀셋, 1922년 이마오카(今岡)제작소도 기공 기구, 1923년 나카지마(中島)제작소는 치과용 소기계, 1924년 이시즈카(石塚)제작소는 봉합 물품, 메스와 엘리베이터, 1926년 오야(大矢)치과기계제작소, 1926년 야정(八町)제작소, 1927년 요시노(吉野)제작소는 메스, 발치 겸자, 골 겸자, 핀셋, 아이다(会田)제작소, 교리츠(協立), 시오다(塩田)치과기계는 겸자, 브라이어를 제작 판매하였다.

1930년 나카니시(中西)치과기계와 나카무라(中村)제작소는 핸드피스와 콘트라앵글, 1932년 나카이(中井)치과상점은 인스트루먼트, 코튼롤 용기와 오물통 겸용 용기, 1934년 나카이(中井)치과상점은 전기버너, 1934년 요시다(吉田)제작소는 여러 종류의 증화 캔,

1934년 니시카와(西川)제작소, 기타하라(北原)제작소, 오히라(大平)제작소는 치과용 소독기, 소독케이스, 1936년 오오토야(大屋)치과기계는 치과용 금관협자(鉗子), 1939년 이시리(井尻)치과상사는 야지마식 루트 엘리베이터회, 산에이(三榮)치과상회는 엑스카베이터 스케일러 등을 제조 판매하였다.

1940년 2월 모리타(森田)치과상점에서는 전선에서도 후방에서도 갖추어야 할 왕진용 세트를 만들기도 했다.

구강의 청결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로 구강청소 겸 치조농루 치료기가 있었다. 이 장치는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기계부에서 제작 판매한 산소 살균 수세조 및 산소분사를 하게 하는 것이었다.

적외선의 살균작용을 이용한 등(燈)이 판매되기도 하였다. 1934년 쇼와(昭和)상회 경성출장소에서 솔라램프 적외선등(赤外線燈)을 판매한 것이 그것이었다.

1934년 아오키(青木)치과상회에서는 선-카본 태양등을 판매하였다. 이들은 주로 염증성 질환에 이용하도록 한 것이 그 특징이었다.

초단파를 이용한 치료기가 근관치료 및 구강영역의 염증 치료에 사용되었다. 1936년 토요(東洋)의료화학 연구소는 동양식 A형 토라덴트를 근관치료에 제작 판매하였다. 1937년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기계부는 구강영역의 염증 치료에 지멘스형 초단파 투열치료장치(Siemens-Dental-Ultratherm)를 제작 판매하였다.

1927년 7월 나카자와(中澤)치과기계 제조사는 나카자와(中澤)식 샤프형 무납 금관 제조기를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1938년 나카자와(中澤)치과기계 제조사는 무봉금관을 판매하였다.

1933년 4월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기계부는 타카시마식(高島式) 주조기를 판매하였다.

1939년 니혼(日本)치과상사는 주형식 간이 급냉기를 발매하기도 했다.

ORIGINAL ARTICLE

1913년 아키야마(秋山)치과기구제작소, 1922년 오가와(小川)치과기계제작소, 1931년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 경성출장소 치과기계부는 각종 특징·장점·결점을 취사선택한 교합기를 판매하였다.

1912년부터 콘도(近藤)전기가 전기레스를 외국제품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 1933년 야마타(山田)치과기계점, 1934년 모리타(森田), 요시다(吉田), 나카지마(中島)치과기계제작소, 1936년 나가다(長田)전기, 1939년 오가와(小川)치과기계점은 전기레스를 판매하였다.

1927년 요시다(吉田)는 기공전용의 물을 개발하여 판

매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기록에 남아 있는 한국인 치과장비 및 기구 재료상은 아래와 같았다. 1934~1939년 박덕평(朴德平) 중앙치과상회(中央齒科商會), 1935년 한남수(韓南洙) 경성치과상회(京城齒科商會), 1936~1937년 박원규(朴元圭) 소화치과상회(昭和齒科商會), 김동표(金棟杓) 조일치과상회(朝日齒科商會), 이덕현(李惠顯) 천일치과상사(天一齒科商社), 노갑성(盧甲成) 공영치과상회(共榮齒科商會), 황영기(黃永基) 삼경치과상회(三京齒科商會)가 치과 기재상을 하였다.

참 고 문 헌

- 《皇城新聞》
- 《매일신보》
- 《동아일보》
- 『朝鮮齒科醫學會雜誌』
- 『京城齒科醫學會雜誌』
- 『朝鮮之齒界』
- 『滿鮮之齒界』
- Boots, J. L. The New Dental Clinic at Seoul,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vol. 28 no. 1, 1932.
- 『朝鮮齒界』, 제1권 제1호, 1946.
- 大澤義誠, 「조선치과변천 이야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 은중기, 「한말의 치과업계에 대하여」,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 李漢水, 『東西齒學見聞記』, 석암사, 1977.
- 업계사편찬위원회, 『일본치과업계사(기계편)』, 일본치과기업협의회, 1986.
-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 참윤, 2005.
- 이병태, 『치의학사전』, 출간 예정 사전